

콜롬비아, 좌파 구스타보 당선과 전투기 구매 계획

□ 6.19일 콜 대선 최초 좌파후보 구스타보 페트로 당선의 의의

- 전 게릴라 출신으로 불공정 사회 개혁을 내걸었던 구스타보 페트로가 6.19일 결선에서 50.5%가 넘는 득표로 47.3%득표에 그친 우파 후보 에르난데스를 누르고 역사상 최초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
- 중남미 주요국들 중 브라질 제외한 멕시코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칠레, 페루 등 모두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오늘 10월 브라질 대선에서도 전 대통령 물라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을 앞서고 승리할 확률이 높음
- 중남미에서 1990년대와 2000년 무렵 좌파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이른바 ‘핑크 타이드’ 등장. 그시기에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남미 자원부국들의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좌파정권이 득세
- 반세기 이상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겪은 콜롬비아는 좌파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러한 흐름에 비껴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의 실패,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반발 등으로 강력한 변화에 대한 요구로 좌파 정부 부상

□ 향후 중남미정권의 정책 방향

-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기득권 정치의 부패와 불공정,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로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수의 좌파 정권이 탄생하였으나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

* 과거 브라질 물라정권 탄생시 “좌측 압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다”는 표현처럼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취한 바 있음

* 2010년대 후반 이후 ‘핑크 타이드’의 퇴조때처럼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불공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정권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

□ 미국 대 중남미 정책 변화 필요

- 그간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콜롬비아는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강경책 등에 보조를 맞추어왔으나 향후 4년은 미와 갈등 예상
 - 미-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재 검토
 - 마약의 합법화 가능성 : 코카인 재배 농촌지역 개발에 초점
 - 국경지역 폭력사태 단절과 무역거래 위해 베네수엘라와 외교 정상화 가능성

□ 콜 국방부의 무기 취득 계획에 미칠 영향

페트로 당선자는 당장 전투기 구입보다는 민생에 치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

- 페트로, 콜 대통령 당선자, 전투기 원치 않아(defensa.com, 6.23)
 - 콜 최초 좌파 대통령 당선자인 페트로는 이반 두케 현대통령에게 어떤 전투기 구매도 하지 말 것을 당부
 -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전투기 구매는 정부의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힘
- 현 두케 대통령은 콜의 무기 구매를 지지한다고 밝혀(defensa.com, 6.28)
 - 콜 국방부의 무기 구매계획은 당선자 페트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둘러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며 수명이 다한 무기류 대체를 위해 수년간 조사를 거친 계획임을 밝힘
- * 콜 공군은 이스라엘 크피르 전폭기 23대, 브라질 엠브라에르 슈퍼투카노 24대 운영중으로 2023년부터 중형공격기 F-16 도입 예정이며 경공격기는 선정 과 정중. 후안 마누엘 前정부부터 노후화한 전투기 교체 협상 수년간 진행하여옴